【신간소개 및 비평】

지배자의 시선으로 본 한반도 북방・만주와 중국 연변지역(북간도)

- 박환, 『간도의 기억 - 일본제국의 대륙침략과 조선인의 항쟁』(민속원, 2017)
- 박환・박호원, 『재만 조선총독부시설 기념첩 - 일본제국의 양면 ; 탄압과 회유』(민속원, 2017)

장 세 윤*

Ⅰ

2017년 6월 박환 교수(수원대)가 매우 주목되는 편저 두권을 간행하였다. 주로 조선총독부와 중국 연변의 龍井에 있던 '間島총영사관', 혹은 일본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서 발행한 사진첩을 정리하고 번역・해제한 사진 해설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일하게 1920년대 중반 남만주에서 활동했던 유력 독립운동 및 한인 교민 자치단체인 正義府에서 발행한 기관지 『젼우』제3호가 운동주체인 한인측 기록으로 『간도의 기억』에 수록되어 있어(286~343쪽) 이채를 띤다.

이미 박교수는 『사진으로 보는 러시아지역 한인의 삶과 기억의 공간』(민속원, 2013), 『사진으로 보는 만주지역 한인의 삶과 기억의 공간』(민속원, 2016) 등 러시아와 만주지역 이주 韓人들의 삶과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공간에 관

* 동북아역사재단.

www.kci.go.kr

한 귀중하면서도 의미있는 사진집을 발간하여 언론과 학계,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민속원출판사의 '범월과 경계' 시리즈물로서 박환・박호원, 『간도사진첩 - 만주, 제국주의 시선과의 첫 만남』(민속원, 2016)을 펴낸 데이어 올해 박교수 단독편저로 『간도의 기억 - 일본제국의 대륙침략과 조선인의 항쟁』 및 박환・박호원 共編, 『재만 조선총독부시설 기념첩 - 일본제국의 양면 ; 탄압과 회유』 두권의 편저를 간행하여 학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박호원은 번역을 맡았다.[1)]

이에 필자는 위의 두 책을 간단히 소개하고 약간의 논평을 해보고자 한다.

Ⅱ

1) 이 책을 낸 민속원 출판사는 '범월과 경계' 시리즈를 내면서 그 취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조선후기 국법을 범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만주지역으로 월경한 역사적 상황을 함축적으로 범월로, 만주지역에 거주하면서 경계인으로서 조선인의 삶과 위상을 경계로 표현하여 총서명을 「범월과 경계」로 하였다. 또한, 범월에는 과거 국경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의 고단한 삶을, 경계에는 주변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민족의 모습을 조망하고자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www.kci.go.kr

『간도의 기억』은 무려 821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진집이다. 이 책에는 9종의 사진첩류가 해제와 함께 사진 설명문(캡션)도 번역 수록되어 있어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의 주요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부 일제의 간도 진출과 조선인
1장 3·1운동 이후 일제의 조선인 탄압과 회유
『間島記念寫眞帖』
2장 1920년대 간도와 조선인들
『間島寫眞帖』(1930)
3장 사진엽서로 보는 1920년대 간도의 풍경
『木崎回春堂 發行 間島土山繪葉書』外
2부 독립운동, 그 열정의 기록
4장 만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외침, 정의부 기관지
『젼우』 제3호
3부 일본제국의 대륙침략을 위한 안내서
5장 러일전쟁 후 새로운 군사도시 청진에서 간도로
『北韓(自淸津至間島)沿道寫眞帖』
6장 일제의 조선강점과 간도 침략
『一名 北韓案內書 北韓及間島風景風俗寫眞帖 上卷 附; 北韓間島旅行案內記』
7장 1차 세계대전과 대륙으로의 진출
『北鮮風景風俗寫眞帖』 제1집
8장 지방지에 보이는 북방표상
『咸北要覽; 附 間島琿春』
4부 사진첩을 통해 본 국경
9장 긴장과 평화의 공존, 독립군의 활동과 국경
『國境寫眞大觀』(1929년-1934년)

한편 이 책에 실린 원본의 서지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www.kci.go.kr

① 在間島 일본총영사관, 『間島記念寫眞帖』(일본 岡山, 1924)
일본 學習院大學 동양문화연구소 우방문고 소장
② 간도 尾崎사진관, 『間島寫眞帖』(1930) 일본 시가현립대학 도서관 박경식문고
③ 『木崎回春堂 發行 間島土山繪葉書』(간도 尾崎사진관, 1920년대) 독립기념관 소장
④ 정의부, 『전우』 제3호(大東民報社, 1927.7.1) 미국 하버드대학교 엔칭도서관 소장
⑤ 『北韓(自淸津至間島)沿道寫眞帖』(1905)
일본 學習院大學 동양문화연구소 우방문고 소장
⑥ 『一名 北韓案內書 北韓及間島風景風俗寫眞帖 上卷; 附 北韓間島旅行案內記』(小池奧吉・荒木竹風, 東京 精美堂, 1910) 일본 東京經濟大學도서관 四方博文庫
⑦ 『北鮮風景風俗寫眞帖』 제1집(後藤濱次郎, 함북 羅南, 石柏日韓堂, 1916)
경상대학교도서관 춘추문고 소장
⑧ 『咸北要覽; 附 間島琿春』(함경북도, 京城, 조선인쇄주식회사, 1929)
경상대학교도서관 춘추문고 소장
⑨ 『國境寫眞大觀』(1929년-1934년)(石丸銀一, 신의주, 鴨江日報社, 192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조선총독부 도서관 藏書之印' 도장이 찍혀 있음)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내외 여러 곳에 소장된 다종 다양한 원자료를 수집하여 출판한 박교수의 노고는 상찬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자료의 수집과 해제, 번역과 정리, 그리고 출판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만주, 북간도, 서간도 등의 용어나 개념을 별다른 구분이나 엄밀한 지역적 범주, 혹은 개념의 정의도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만주는 대체로 중국 동북지역, 즉 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 등 3성 지역을 가리키며, 北間島는 현재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 西間島는 백두

www.kci.go.kr

산 서남부와 중국측의 압록강 지류인 渾江·松花江 상류 일대·압록강 중류 이북지대를 포괄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북간도라고 하면 한인들이 많이 이주하여 살고 있던 延吉·和龍·汪淸·琿春縣 일대를 지칭했는데, 간혹 혼춘(훈춘)지역이 지리적 범위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간도의 기억』을 통해 간도(특히 북간도)의 지리적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 책에 실린「間島地方圖」(17쪽),「間島之位置」(151쪽)는 당시에 일컫던 '간도'의 범위를 명확히 위 4개현으로 규정했던 것이다(17쪽 참조). 물론 이 범위는 龍井 소재 일본총영사관(在間島日本總領事館)의 행정구역 관할범위였고, 1932년 3월 1일 일본의 만주침략 이후 괴뢰 '만주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간도' 거주 한인(조선인)들에게 치외법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이었다.[2)]

현재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위 4개현(현재 연길·용정·圖們·화룡·훈춘은 市로 승격되어 있음)에 安圖縣과 敦化市가 포함되어 있으며, 43,500 평방km에 달하는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 특히『간도기념사진첩』에는 간도총영사관 경찰과 경찰분서 사진·인명이 수록되어 있어 이 지역 독립운동과 각종 민족운동을 탄압하였던 주역들과 관련 시설 등이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영사관 경찰에 조선인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간도일본총영사관 경찰부 지휘부의 警部에 崔泰旭, 순사부장에 張善太, 본관 경찰서 경부에 玄時達, 局子街(지금의 延吉)분관 순사부장 趙昌鎬, 순사 金洪植이었고, 이밖에도 국자가·頭道溝·훈춘·百草溝 분관 경찰서의 경부나 순사부장, 순사에 상당수가 있었다고 하는 점이다.[3)] 이러한 사실은 일제 통치당국의 교활한 以夷制夷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또 이 책은 한반도 북부지역, 특히 함경도와 평안북도 북부지역, 그리고 두만강 건너편

2) 在滿韓人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박영석, 2010,「만주지역 한인의 법적 지위 - 1931년 만주사변 이전을 중심으로」,『만주지역 한인사회와 항일독립운동』, 국학자료원, 15~72쪽 참조. 재만한인의 治外法權이 철폐된 것은 1937년 11월이었다.

3) 이 책의「간도총영사관 직원표」, 114~117쪽 참조.

www.kci.go.kr

인 북간도(중국 연변) 지역에 대한 생생한 풍광과 일제 통치 관련 시설, 그리고 경찰이나 관리, 국경수비대 등 일본군 관련 사진을 수록하고 있어 한국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일제침략사나 통치사, 韓·滿 국경 지역 관련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리적 관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지도나 사진도 많이 실려 있다. 보통 우리는 백두산 상의 큰 호수를 '天池'로 알고 있지만, 이 사진첩에는 龍王潭(639·643쪽), 혹은 龍宮潭(495쪽)이라는 백두산 정상부의 호수 명칭이 보인다. 사실 '天池'라는 명칭은 중국인 관료 吳祿貞이 1908년 4월 간행한 『延吉邊務報告』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천지'라는 명칭이 한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 지도에는 '大澤'이라는 고유명사도 자주 보인다.

이 사진첩은 '용왕담' 설명내용에서 우리의 시조 檀君과 함께 淸의 시조 愛新覺羅설화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 백두산과 천지(용왕담)가 우리민족 만의 무대가 아니라, 만주족의 발상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咸北要覽』의 부록 '간도 및 훈춘'에서 渤海를 靺鞨人이 세운 나라로 설명하는 데서도 간취할 수 있다(535쪽).

한편, 우리에게 '백두산정계비'로 널리 알려진 비석 사진 두장을 '국경정계비'라는 이름으로 게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1909년 일본과 청(중국) 사이에 체결한 소위 '간도협약'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경정계비'라는 이름을 붙인 듯하다. 주지하듯이 이 비석은 1931년 9월 '9·18사변(만주사변)' 이후 행방불명되고 마는데, 1928~1929년경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또한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와 비교적 잘 남아있는 국내성 성문(輯武門)과 성벽, 오늘날 장수왕릉으로 추정하고 있는 적석총인 '장군총' 등의 유적 사진을 담고 있다(702~705쪽). 특히 이미 도굴되어 파헤쳐진 장군총의 묘실에 '好太王 神位'라고 쓰인 목패가 묘실 안에 배치되어 제사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그나마 1920년대 말 현지 상황을 전하고 있다.

www.kci.go.kr

한편 이 책에는 한·중간 국경문제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지도가 2매 수록되어 있는데, 「北韓及間嶋旅行略圖」(443쪽)와 「最新北鮮地圖」(495쪽)가 그것이다. 전자에는 한중간의 국경선이 붉은 점선으로 '長白山' 아래 '정계비' 바로 아래로 표시되고 있다. 후자는 백두산이나 장백산 표시없이 '龍宮潭(천지)'과 '정계비' 아래로 흑색점선이 그어져 있다. 이 기준을 따른다면 백두산과 천지는 식민지 '조선'의 국경선 밖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백두산과 천지 일대의 국경선이 불분명했던 당시 실정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소개한 「間島之位置」지도(151쪽) 와 「함경북도 산업교통지도」(597쪽) 역시 '백두산'과 '정계비', 그리고 천지의 위치와 국경선이 모호하게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및 역사 개설서 등에 자주 실리는 사진이지만, 그 출처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그 출처나 典據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용정 牛시장(181·183쪽), 한인들의 벼농사장면(189쪽), 중국 관리인 延吉道尹 陶彬(77쪽), 용정 일본총영사관(155쪽) 등 각종 관공서 사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방대한 사진과 해설이 수록되어 있어 상세한 소개와 논평은 생략할 수밖에 없다. 하여간 이 사진집은 아무래도 일본인 관리나 경찰, 식민지 관련 기관의 인물들이 주인공이나 주요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 반면에 조선 북부지방이나 중국 연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간도기념사진첩』이나 『간도사진첩』의 경우가 그러하다.

즉 특정 소수자만이 아닌 일반 서민이나 민중의 반제국주의·반외세, 혹은 항일투쟁 관련 인물이나 움직임, 그러한 동향이나 사상, 표현 등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진집을 통해서는 당시에 말하지 못했던, 아니 보이지 않았거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이주 韓人들의 고통이나 어려움, 침묵의 목소리나 표정, 태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일하게 1920년대 중반 남만주에서 활동한 한인 교민 자치 및 독

www.kci.go.kr

립운동 영도기관인 正義府에서 발간한 잡지『젼우』제3호를 소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아직까지 이 잡지가 단행본으로 공개 출판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박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잡지는 서강대학교 사학과에 재직하고 있던 은사 李光麟 교수가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에 방문학자로 갔다가 구해온 자료라고 한다. 실로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4] 왜냐하면 만주 독립운동 관련 단체에서 발행한 출판물 등 1차 사료는 대부분이 없어지고, 남은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잡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독립군활동 성적 통계표」와「대동민보 社友 芳名」이 아닌가 한다. 독립군활동 통계표에 따르면 1920년부터 1926년까지 압록강변에서 활동한 독립군이 적의 경찰서・주재소 습격 48건, 군청・면사무소・금융조합・기타 관공서 습격 45건, 諸官公署所 및 惡分子 가옥 방화 283호, 파손액이 21,818圓의 성적을 냈다고 한다(289쪽). 또 대동민보 社友 芳名은 일정한 구독료를 내고『젼우』지를 구독하고 있는 한인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288~289, 322쪽), 이들은 대부분 독립운동을 후원하거나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유지들로 추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독립운동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興京縣의 양세봉은 이 무렵 정의부 산하 의용군 독립군 중대장으로 활약하고 있었는데, 1930년대 전반기 조선혁명군 독립군 사령관으로 남만주 지역에서 크게 활약하며 용맹을 떨친 사람이었던 것이다.[5]

그 때문인지 박교수는 무려 40쪽에 이르는 가장 많은 분량의 해설 내용을 집중하여 이 잡지의 분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마도『젼우』잡지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또 박교수는『국경사진대관』의 해제 '제국에 의해 조작된 조선인들의 전근대적인 모습들'이란 小節에서 "사진의 대상을 조선인의 역동적인 힘을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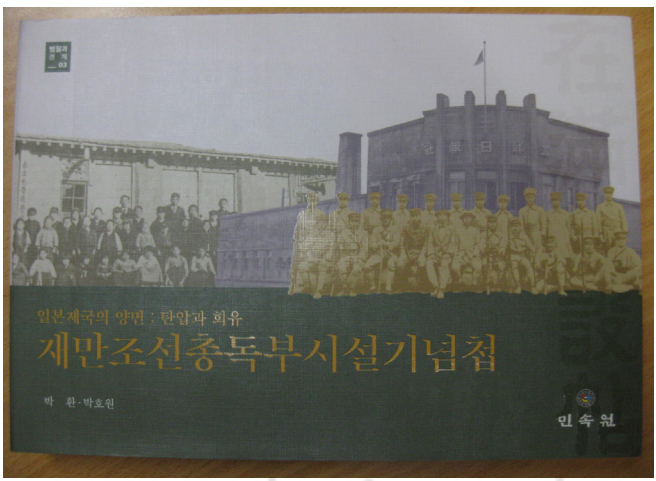
4) 박환, 2015,「정의부 기관지『戰友』의 간행과 내용」,『한국민족운동사연구』83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307~463쪽 '자료소개'의 해제와 원문을 보완하여 이 책에 수록하였다.
5) 양세봉에 대해서는 장세윤, 2016,『남만주 최후의 독립군 사령관 양세봉』, 역사공간 참조.

www.kci.go.kr

시하는 청년이나 그런 모습 대신 노인들의 한가한 모습과 기생, 아낙네 등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어, 활영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짐작케 한다. 한편, 평북 신의주의 경우 근대적인 주요 시설물들로 10여장 상세히 수록하여 일본을 통하여 조선이 근대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629쪽)라고 이 사진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체적, 비판적 시각에서 이 책에 실린 사진이나 문서군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그 상징성과 의미를 깊이 반추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사는 물론, 생활사와 관련된 사회사나 문화사적 측면에서도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일천한 일제침략사나 한반도 북방지역·중국 연변지역 연구, 한국근대사 연구와 교육, 기타 문화콘텐츠 활용 등의 관점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Ⅲ



www.kci.go.kr

『재만 조선총독부 시설 기념첩 - 일본제국의 양면 ; 탄압과 회유』는 모두 341쪽 분량이다. 3종의 책을 수록했는데, 해제는 박환, 번역은 박호원이 맡았다.

이 책의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재만조선총독부시설 기념첩』
해제 1930년대 만주벌의 조선인을 만나다
번역 재만조선총독부시설 기념첩
제2부 부록
1. 해제 순회 진료로 간도지역 조선인을 회유하다
번역『훈춘 및 간도지방 순회진료기』(1933)
2. 해제 1940년대 왕청현과 안도현의 조선인들
번역『동만개척지 순회진료기』(『조선』11월호[제342호], 1943)

이 책에 해제와 번역으로 소개된 원자료의 서지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朝鮮總督府,『在滿朝鮮總督府施設記念帖』(東京印刷株式會社, 194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② 京城帝國大學醫學部 巡廻診療班,『琿春及間島地方 巡廻診療記』(京城, 近澤印刷部, 193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③ 大石卓,『東滿開拓地 巡廻診療記』(『朝鮮』 342호, 1943년 11월호)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朝鮮』은 1986~1988년에 간행한 고려서림 영인본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원본 소장처를 밝히지 않았다.

위 3종 가운데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在滿朝鮮總督府施設記念帖』은 식

www.kci.go.kr

민지 '조선'과 '조선인', 在滿 조선인에 대한 일본적 오리엔탈리즘, 나아가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통치 미화론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은 조선총독부에서 지원하거나 세운 학교나 병원 등 위생시설, 은행이나 금융조합 등 금융기관, 관공서 등의 시설 관련 사진을 다수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在滿 조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우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종래 만주지역 조선인의 다수는 노동 관념이 매우 부족하였고, 게으름이 습성이 되어 생활안정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포자기에 빠졌으며, 그중에는 不逞한 무리에 몸을 맡기는 자 또는 일확천금을 꿈꿔 부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있어 애석하게도 일생을 제대로 보전할 수 없었다. 이는 명랑한 만주국 건국의 정신에도 어긋날 따름이므로 당국에서는 이런 나태한 풍습을 교정하여 정신적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민회, 금융회, 農務契와 협력하여 그 지도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대강을 들자면 수확물의 投賣 예방에 대처하는 공동판매, 저축장려 및 채무 변제와 농한기의 작업 勵行이었다."[6]

재만 조선인들이 생활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매우 어려운 사회경제적 처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요인을 일제의 침략과 수탈, 일본인들의 한반도 이주에 따른 강박적 이주, 그리고 조선총독부 등의 강제이주 정책 등 구조적 요인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단지 조선인들이 노동관념이 부족하고 게으름이 습성화되어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그렇다고 책임을 조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조선총독부 당국에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과 대책을 강구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다는 자화자찬식의 보고서인 것이다.

이 책에 게재된 「만주국 조선인 現勢圖」(24쪽)는 1932년 3월 1일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이 성립된 다음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 만주국의 각 省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 조선인들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6) 박환·박호원, 2017, 『재만 조선총독부 시설 기념첩 - 일본제국의 양면 ; 탄압과 회유』, 203쪽.

www.kci.go.kr

1930년대 중반경 만주 이주 한인들의 이주 및 거주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인들이 제일 많았던 間島省의 경우 85,943호에 482,97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安東省의 경우 8,125호에 43,174명, 奉天省은 23,168호에 118,470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1920년부터 1937년까지의 연도별 인구 및 戶口, 직업별 戶口表는(58~61쪽) 재만한인들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한인 이주사 및 만주지역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본다.

이 책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만주사변'(1931.9.18)에 따른 조선인 피난민들에 대한 구호 모습(251~259쪽), 그리고 "법권 철폐에 따라 재만 시설의 만주국으로의 인계" 관련 여섯장의 사진은(260~266쪽) 在滿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변화를 초래한 '치외법권'의 철폐에 따른 교육・산업・의료 등 관련 여러 시설과 외무성 시설에 관련된 조선인민회 사무 등이 모두 1937년 11월 말일자로 종언을 고하고, 12월 1일자로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으로 이양되어 재만 조선인들이 만주국 구성원의 일부로 만주국의 통치를 받게된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항일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의 강압과 주도로 조직된 집단부락의 모습과(178~198쪽), 이 집단부락을 중심으로 조직된 한인 自警團의 모습(174~177쪽) 등도 실려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1930년대 중반 중국 동북지역에서 거세게 일어났던 중국인의 항전에 부응하여 조선혁명군 등 한국독립군도 중국 항일세력과 연대하여 치열한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는데, 이들은 만주국 군경과 관헌, 일본 군경은 물론 이 집단부락의 한인 자경단에 의해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또 營口・河東・鐵嶺 등의 소위 '안전농촌'으로 명명한 韓人 집단농장의 모습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226~250쪽).

이 책 뒷부분의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순회진료반의 『琿春及間島地方 巡廻診療記』는 조선총독부에서 세운 일본인 교육기관인 경성제대 의학부가 1933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중국 연변지역(북간도) 한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진료 내용과 감상을 참가자들이 정리한 것이다.

www.kci.go.kr

집필자인 스기하라 노리유기(杉原德行) 교수는 이 책 편찬의 주목적이 "주최 및 후원기관인 조선총독부 外事課 및 조선군에 대한 보고"라고 밝히고 있다.[7] 박교수의 해제 내용대로 이들은 당시 북간도로 불리던(행정구역 상으로는 間島省) 이 지역을 방문하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변방지역 한인들을 순회진료함으로써 조선총독부의 施政 및 일본 통치당국의 위생과 의료시책을 전파,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책에 실린 大石卓의 『東滿開拓地 巡廻診療記』는 汪淸縣과 安圖縣의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1943년 8월 4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 보고한 것이다. 주목되는 사실은 이 순회진료반이 방문한 두 지역은 간도지역 중에서도 비교적 오지에 속하는 산간지역이고, 일제의 태평양전쟁 도발로 한창 전쟁이 진행중이던 시기에 순회진료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총독부 외사과의 주도로 의료혜택과 위생을 통해 조선인을 회유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책은 조선총독부와 경성제국대학 등에서 간행한 사진집과 문서기록으로 조선총독부의 각종 시설물 설치와 활동, 경성제대 의학부의 진료활동을 사진과 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1차 사료적 성격과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사진들을 통해 일제 당국의 조선인 관리와 감시, 회유라는 제국주의적 시각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제기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만주와 북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모습과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일제 통치당국과 그 관계자가 편찬한 이 사진첩은 지배자의 시선으로 편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체적인 우리의 시각이나 감정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피지배자인 우리민족의 시선이나 사고를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참고문헌이나 사진자료,

7) 박환 해제, 「순회 진료로 간도지역 조선인을 회유하다」, 『혼춘 및 간도지방 순회 진료기』, 271쪽.

www.kci.go.kr

당시의 신문기사, 심지어는 일부 서사적 문학작품까지도 등시에 참조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8)]

예를 들면 1920년대 초 두만강변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숨막히는 삶을 생생하게 묘사한 한국인 최초의 서사시인 金東煥의 '국경의 밤(1925년)'은 이 무렵 국경지대 서민들의 삶을 아래와 같이 매우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삼동(三冬)에 묻히운 '병남(丙南)'의 송장은 쫓겨가는 자의 마지막을 보여주었다. (밑줄은 필자)
(중략) 여러 사람은 여기에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속으로 "흥! 언제 우리도 이 꼴이 된담!" 애처롭게 앞서가는 동무를 조상할 뿐"

또 李庸岳이 1939년에 발표한 '전라도 가시내'라는 시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생생한 북간도(현재 중국 연변지역)의 분위기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젠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밑줄은 필자)"

물론 밑줄 부분은 시인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8) 당시 만주나 간도 관련 신문이나 잡지 기사를 편집한 책으로 蘇在英 편, 1989,『간도유랑 40년 - 중국・시베리아 미공개 기행문 23選』, 조선일보사 출판국 참조. 더욱이 이 책에는 경성제대 의학부 출신 金晟鎭의 순회진료기「만주벌을 향해 - 청진기 기행」이 실려있어(227~235쪽) 일본인 보고서와 다른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밖에 박환, 2001,『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 답사기』, 국학자료원 ; 국립민속박물관 편, 2008,『북간도에 세운 이상향 명동』, 국립민속박물관 ; 가린-미하일롭스키(이희수 옮김), 2010,『러시아인이 바라본 1898년의 한국, 만주, 랴오둥반도』, 동북아역사재단 ; 유지원 외, 2011,『이민과 개발 - 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2013,『訳註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 紀要』, 동북아역사재단 등 참조.

www.kci.go.kr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북간도 지역의 흉흉한 분위기와 민심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서사적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관제 사진첩을 통해서는 이 시처럼 피지배 민중의 의식이나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Ⅳ

사진은 "그 자체로서 말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성과 진실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촬영자나 전문가, 관계자의 구체적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근현대 시기의 사물이나 서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 특히 특정 시설이나 역사적 사건·인물, 사회운동이나 현상 등과 관련된 사진은 촬영장소나 시기, 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보다 분명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소개하는 이 두 권의 사진집은 출처와 典據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정확한 사진과 정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관점과 수단으로 이 사진과 내용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생생한 역사적 장면이나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뼈저린 반성과 성찰, 나아가 시사점과 교훈을 찾을 수도 있다.

우리는 사진이 정확하고 틀림없는 표상매체라고 믿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사진은 보이는 사물을 투명하게 담는 매체라고 할 수 없다. 사진을 누가 재현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내용이나 사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9] 과거 개항 전후 시기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이 찍은 사진의 경우 그들의 취향이나 편견, 오리엔탈리즘적 시각, 혹은 연출의도에 따라 실상이 왜곡되기도 했다. 따라서 주체적, 비판적 관점에서 독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9) 이경민, 2008, 『경성, 사진에 박히다 - 사진으로 읽는 한국 근대문화사』, 산책자, 10쪽.

www.kci.go.kr

그런 점에서 위의 두 책에 실린 사진과 글은 일본 당국의 입장에서 일본인 관리나 경찰, 군부대, 관련 한인(조선인) 등 그들의 정탐과 침략, 식민지 지배와 통치, 혹은 순응과 협력을 위한 관점과 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진들을 6하원칙(누가, 무엇을, 어디서, 왜, 언제, 어떻게)에 의거하여 치밀하게 분석・비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10]

우리 민족이 일제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된 지 72년이 넘은 지금, 박환 교수가 낸 이 두 저서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격동의 한국근대사, 나아가 일본의 한국 및 만주(중국 동북지역) 침략사를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나아가 중국 동북지역(만주) 및 연변(북간도)지역 연구, 한중관계사, 국제관계 차원에서도 치밀하게 검토・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 이번에 출판된 사진집을 한민족의 독립운동이나 생활상 관련 사진집, 다른 참고문헌과 자료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본다면 그때의 실상에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11]

이 사진집에 실린 사진들은 한국근대사 연구와 교육은 물론, 일반 독자들의 역사의식을 높이고, 현실 인식의 뿌리가 되는 과거를 올바로 이해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는다. 다만 원본 사진에 비해 선명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된다. 원본을 활용해서 다시 책으로 내는 과정에서 사진 상태가 나빠지는 현상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이 책을 낸 출판사의 기획의도처럼 관련 '범월과 경계' 총서가 계속 이어지고, 박환 교수 역시 이 작업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러한 사진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함으로써 한국의 학계와 교육계, 일반 국민이나 작가, 문화콘텐츠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만주 등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과 소양,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과 연구・교육을

10) 박주석, 2009,「사진기록의 평가기준 연구」,『한국기록학회지』9권 2호, 92쪽.
11) 이와 관련, 박도 엮음, 2012,『개화기와 대한제국』, 눈빛출판사 ; 박도 엮음, 2010,『일제강점기』, 눈빛출판사 등의 사진집을 비교, 참고하면 유익할 것으로 본다.

www.kci.go.kr

통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에 만주·연해주로 이주하여 매우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조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서거나 적극 성원했던 해외 이주민(해외동포),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소련), 일본 당국·현지인의 정책이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 2017년 12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23일

www.kci.go.kr

www.kci.go.kr